뒷다리가 마비된 장애견 다복이의 기적

하 재 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어느 겨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시장을 헤매고 다니는 아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생후 두 달이나 되었을까요,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미개의 품에서 한창 재롱을 떨어야 할 나이였지만, 한겨울 시장바닥에 버려진 강아지는 믿을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강아지는 차가운 길 위에서 자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먹으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어요.

건강한 몸으로도 힘든 길거리 생활인데, 강아지는 장애마저 가지고 있었어요. 뒷다리가 마비되어 전혀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천적 장애인지 사고 후유증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강아지가 장애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네 다리로 일어설 수 없었던 강아지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온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 했어요. 그런 몸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고, 하룻밤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 게 강아지의 일상이었지요. 강아지에게는 생애 처음 본 세상이, 처음 맞이한 겨울이 얼마나 가혹했을까요.

하지만 강아지는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항상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주 작은 호의라도 보여주면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다니곤 했지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한 할머니는 아기인데다 걷지도 못하는 이 강아지를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강아지를 도와주었던 방법은 강아지를 거둬주는 것이 아니라 시보호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할머니는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보호소에 가면 열흘이 지난 후 안락사를 당하고 만다는 것을, 멀쩡한 강아지도 입양 가기 힘든 상황에서 장애까지 가진 강아지가 입양자를 만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길 위를 떠돌다 안락사로 마감하는 생. 사람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보상받지 못한 어린 강아지의 운명은, 어쩌면 그토록 서글프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보호소에 들어선 순간, 이 강아지에게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팅커벨 프로젝트 회원이자 강원도 원주에 사는 지애 씨가 우연히 이 강아지의 사연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 이대로 죽으면 너무 불쌍하다. 우선 살려놓고 보자.'

팅커벨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유기견 관련 봉사를 열심히 해왔던 지애 씨는 이미 두 마리의 대형견과 한 마리의 중형견, 두 마리의 소형견을 키우고 있었어요. 유기견들 가운데에서도 남들이 선뜻 입양하지 않는 강아지들을 데려오다 보니 개중에는 아프거나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도 있었지요. 이미 다섯 강아지의 보호자로, 동네 길고양이들의 캣맘으로 살고 있는 지애 씨로서는 장애견 한 마리를 더 입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에게 기적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세상에는 너를 버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애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부터라도 많은 복을 받으며 살라는 의미로 지애 씨는 '다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다복이는 시장 사람들의 말처럼 천성이 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온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지애 씨와 함께 있을 때에는 온몸으로 애정 표현

을 하는 강아지였지요. 착한 다복이는 지애 씨와 함께 살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고마웠을지 모르지만, 지애 씨는 다복이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네 발로 땅을 딛고 서는 기쁨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돈도 시간도 모자랐지만 지애 씨는 백방으로 쫓아다니며 수 백 만 원의 돈을 다복이의 치료비로 사용했어요. 그래도 다복이의 다리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애 씨는 팅커벨 프로젝트 카페를 통해 다복이와 비슷한 상태였던 강아지들이 한방치료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척추신경장애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던 달마, 홍역후유증으로 사지를 못 쓰던 포근이, 그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 걷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애 씨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다복이도 한방치료를 받아서 네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달마와 포근이에게 일어난 기적이 다복이에게도 일어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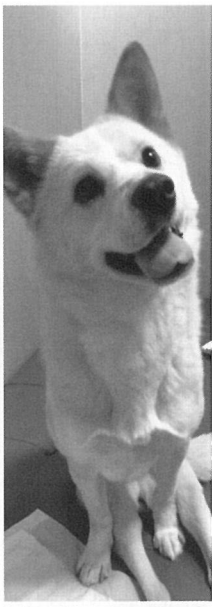
마음은 간절했지만 강원도에 사는 지애 씨가 다복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한방치료에 드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아프고 나이든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돌보는 지애 씨로서는 반나절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복이에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애 씨와 다복이의 사정을 알게 된 팅커벨에서 다복이를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얼마 후 다복이는 서울로 올라와 팅커벨 연계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방치료와 함께 뒷다리에 외과적 수술이 병행된다면, 완벽한 보행은 힘들더라도 다복이가 제 힘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단체 입장에서도 외과 수술과 한방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다복이의 병원비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팅커벨 프로젝트는 그 당시 막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신생 동물보호단체였고, 입양센터 설립과 다른 환견들의 치료로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복이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원들이 다복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비 마련에 나선 거예요. 회원들은 입양 캠페인에 참여해 애견용 목걸이(이름표)와 손수 만든 강아지 스카프, 넥 카라 등을 판매했고, 3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을 다복이의 치료에 보탤 수 있게 되었어요. 지애 씨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기적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서 다복이는 지애 씨의 집을 떠나 팅커벨 입양센터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양센터와 연계병원 입원실을 오가며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아마 다복이는 지애 씨가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 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다복이는 병원과 입양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가웠고, 함께 있는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항상 친절했어요. 다복이를 만나는 사람들은 처음엔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복이와 함께 있다 보면 동정보다 사랑을 느끼곤 했어요. 정말이지 다복이는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사랑스러움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너무나도 완벽한 반려견이라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이였지요.

다복이가 집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한 기간은 총 10개월.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뀔 동안 다복이는 수십 번의 통원치료와 5개월의 입원치료,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대수술을 견뎌냈습니다. 그 동안 지애 씨를 비롯한 팅커벨 프로젝트 회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다복이를 응원했어요. 다복이가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다복이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다복이는 끝내 네 발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와 수술에 대해 약간의 성과가 있다면, 스스로 엉덩이를 약간 들 수 있게 되어서 배변을 할 때 더 이상 엉덩이에 배설물을 묻히지 않게 된 정도였어요. 미안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애 씨의 품에 안긴 다복이는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양센터와 병원에서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듯했던 다복이. 하지만 지애 씨 앞에서 다복이는 어린애처럼 잉잉 울며 어리광을 부렸어요. 마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바라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이 다복이에게는 가장 큰 기적일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래서 가족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 다복이를 비롯한 모든 유기견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